

## 현대 착용한복의 색변화에 대한 종단적 연구

김 찬 주\* · 홍 나 영\*\* · 유 혜 경\*\*\* · 이 주 현\*\*\*\*

인천대학교 패션산업학과 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교수\*\* ·

인천대학교 패션산업학과 교수\*\*\* · 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 교수\*\*\*\*

### A Longitudinal Study of Color Changes of Hanbok in Modern Times

Chanju Kim\* · Nayoung Hong\*\* · Haekyung Yu\*\*\* · Juhyeon Lee\*\*\*\*

Professor, Dept. of Fashion & Industry, University of Incheon\*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 Industry, University of Incheon\*\*\*

Professor, Dept. of Clothing Environment, Yonsei University\*\*\*\*

(투고일: 2008. 10. 10, 심사(수정)일: 2008. 12. 5, 게재확정일: 2009. 2. 15)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how Korean women's traditional costume, Hanbok, has changed according to the times in terms of color coordination of Jeogori and Chima. Photos had been taken at wedding places and streets at 5 major cities(Seoul, Pusan, Kwangju, Daejon, Jeju) at two weekends of each season in 1999, 2001, and 2003. Total 1617 photos were used as final data. Data were analyzed by hue coordination and value level. Hue coordination exist in one-color and two-color coordination. In one-color coordination, red color(R & RP) was the most frequently used and blue green(BG) was the next, and the least was blue purple(BP) for each year. In value scale, high level was the most frequent and followed by middle level and low level. Pink was the most preferred color for one-color coordination. In two-color coordiantion, white and blue were widely used for Jeogori and red and blue for chima for each year, which seemed to be the basic color coordination for Jeogori and Chima. While there was a certain basic color coordination types across year, but a few new color coordination appeared each year and maintained as popular color coordination for one or two year.

Key words: Hanbok(한복), Jeogori(저고리), Chima(치마), color change(색채변화),  
color coordination(배색), longitudinal study(종단적 연구)

## I. 서론

한복은 우리 고유문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양식으로 오랜 역사를 갖고 변화해왔으며 현대에서도 한복은 시대를 반영하며 변화하고 있다. 1세기 전만 해도 남녀노소 구별 없이 일상복으로 착용하던 한복의 가장 큰 변화는 현대에서는 특정한 상황에만 입는 예복이 되었다는 점이다. 간편하고 활동적인 서양복장이 일상화된 현대 생활에서 한복은 결혼식이나 회갑, 칠순, 돌 등 친지들의 잔치, 개업식, 자선행사파티와 같은 예식과 사교모임이 있을 때 예의를 갖추기 위해 입거나 설날, 추석 등 민족의 명절과 전통공연과 같은 문화행사 참석시 전통문화를 보여주는 용도로 주로 착용되고 있다. 이러한 전통한복의 예복화는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20세기 들어 근대화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서구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공통된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각 민족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그대로 표현하고자 하는 문화적 시도가 포스트모더니즘이란 큰 유티리티 안에서 보편화되면서 전통복식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한복의 심미적 가치가 중시되고 있다.

한복이 예복화 되면서 일어난 또 다른 변화는 기능성보다는 장식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한복에서 발견되는 장식성은 형태는 큰 변화가 없고 주로 색채와 자수 등 디테일이 더해진다는 점이다. 특히 색채는 한복이 가진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심미적 요소로 거론된다. 한복을 입는 이유를 조사한 선행연구에서 한복을 입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한복의 우아한 이미지와 전통문화 상징이 긍정적 요소로 제시되었는데 이들은 주로 색채와 관련해 연상되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들 다수가 한복이 가진 독특한 미는 색채로 가장 잘 표현된다고 하였으며 한복의 색채는 아름답고, 화려하며, 고전적이라고 표현하였다.<sup>1)</sup> 그리고 이러한 한복의 아름다운 색채감각은 과거와 비교해서 전통성을 얼마나 유지하는 지에 따라서 이미지가 매우 달라졌으며, 한복의 형태가 거의 일정하여 개인의 다양한 기호를 표현할 방법은 주로 배색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

문에 한복에서 색채의 의미가 더욱 크게 부각된다고 보인다.<sup>2)</sup>

이처럼 한복에서 색채의 의미가 크고, 현대에서 한복 착용이 전통문화를 표현하는 상징적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한복 배색의 시대적 변화 즉 한복의 배색이 과거에 비해 얼마나 전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기에 따라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현대 생활에서 한복 배색의 전통성 유지와 시기별 변화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한복의 배색변화를 시간적 차이를 두고 조사하였다. 현대 전통한복은 주로 여성들이 착용하기 때문에 여성 한복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시기는 21세기 전환을 중심으로 1999년, 2001년, 2003년 3개 년도를 선정하여 변화를 고찰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대중들이 선호하는 한복배색의 유형에 관하여도 알 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하였다.

## II. 이론적 고찰

### 1. 색채분류의 기준

색채를 분류하는 기준으로서 가장 대중적이며 기본적인 것은 먼셀(Munsell)표색계이다.<sup>3)</sup> 먼셀표색계에서는 빨강(R), 노랑(Y), 녹색(G), 파랑(B), 보라(P)를 제 1차 기본색으로 하고 이들 5개 기본색 사이에 위치하는 주황(YR), 연두(GY), 청록(BG), 남색(PB), 자주(RP)를 제 2차 기본색으로 하여 모두 10가지를 기본색으로 한다. 이들 10개의 기본색들간의 간격을 10등분하여 총 100개의 색상(hue)을 수치와 기호로 표기하고, 또한 100개 색상들의 명도(value)는 11단계, 채도(chroma)는 14단계로 구분한다. 명도는 보통 저, 중, 고의 3단계로 분류하고 채도 역시 저, 중, 고의 3단계로 분류한다. 즉 먼셀표색계는 색상(hue), 명도(value), 채도(chroma)의 3개 축에 따라 등간격의 색채들을 입체적으로 배열해 놓음으로써 색채의 체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따라서 먼셀표색계에서는 이들 3개의 물리적 속성을 나타내는 HVC기호(H:색상, V:명도, C:채도)로 모든 색채를 표기한다.

색채를 분류하는 또 하나의 대표적 기준으로, 색채의 물리적 속성 뿐 아니라 색채지각자의 심리적 감성에도 중점을 두고 수립된 분류 기준인 색상-톤 시스템이론 (hue & tone system)이 있다.<sup>4)</sup> 이는 ISCC-NBS(Inter-Society Color Council-National Bureau of Standards)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서, ISCC-NBS는 색채 명명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먼셀의 색상 중 40개를 선택하고, 40개 색상이 지니는 모든 명도 및 채도단계를 12개의 톤(tone, 명도와 채도를 혼합한 개념)으로 분류하므로써 색상과 톤 2개 속성을 사용하여 색채를 명명하는 ISCC-NBS색명법을 개발하였다.

한편 Kobayashi(1987)는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에 따라 색명법을 토대로 먼셀표색계의 10개 기본색상을 12개의 톤으로 배열하고, 여기에 10단계의 무채색을 추가한 총 130색으로 구성된 hue and tone system을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에서 Kobayashi는 먼셀 표색계 색채들의 감성효과에 따라 130색을 12개의 tone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들 12개 톤을 vivid(v), strong(s), bright(b), pale(p), very pale(vp), light grayish(lgr), light(l), grayish(gr), dull(d), deep(dp), dark(dk), dark grayish(dkg)로 명명하였다.<sup>5)</sup>

## 2. 한복 색채의 변화

전통적으로 한복의 색상은 일상복과 예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상복은 소재와 담색 위주였다. 반면 예복은 오방색을 중심으로 한 원색의 배색이 많이 사용되었다. 일상시라도 어린이나 젊은 여성, 혹은 경사시에는 원색을 많이 사용하고, 성인들의 경우에는 담색과 중간색이 위주였으며 담백한 분위기와 의복의 형태를 부각시키는 특징을 보였다.<sup>6)</sup> 전통복식에서 사용된 색상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의복은 백색을 포함한 중간색이 많이 사용되었고, 장신구들은 원색계통의 색상을 주로 사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sup>7)</sup>

소재위주의 한복 색상은 1885년 개항되면서 19세기 말 개발된 다량의 합성염료가 수입되어 종래의 쪽물·잇물·감물 등이 염색물의 대종을 이루어 온가내염색수공예 일대 혁명이 일어났다.<sup>8)</sup> 천연염료에

비해 저렴하며 염색과정이 간단한 합성염료가 보급됨에 따라 번거롭고 비능률적인 작업과정을 거쳐야 하는 재래의 천연염색은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였다.<sup>9)</sup> 따라서 한복의 색상도 원색의 사용이 늘어났다. 특히 황과 홍, 녹색과 홍색을 배색하는 신부(新婦)의 옷이나 어린이의 색동옷 등에는 원색의 배색이 많았는데, 그 채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비가 훨씬 강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는 물론 해방이후에도 일상복으로서의 한복의 색상은 여전히 소재와 담색계 위주였다. 다만 일제의 강압으로 백의 착용이 금지되면서, 검은색 두루마기나 검은 치마 등의 착용이 늘어났다. 특히 검은 치마에 흰 저고리는 여학생이나 신여성의 상징처럼 되었으며 일반 여성들도 계속해서 흰 저고리를 즐겨 입었다.

해방직후와 한국전쟁의 혼란기를 지나고 안정기에 접어든 1960년대에는 서양복 소재로 인기 있던 벨벳, 반짝이 소재, 레이스 등이 한복 소재로 애용되고 소재자체의 표면의 입체감을 통해 장식성을 추구하면서<sup>10)</sup> 색상은 원색보다는 파스텔톤의 차분한 계열이 많았다. 서양복의 영향을 받아 치마와 저고리를 한 가지 색으로 통일해서 입는 경향들이 나타났다. 이는 아마도 기혼여성들은 한복을 일상복으로 입는 경우가 많았고, 한복이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예복화 예로 진행이 덜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1970년대부터는 일상복으로 양장을 착용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한복은 외출복이나 예복으로 사용되었다. 이에 따라 합성섬유로 만든 전통소재가 한복지로 사용되고 그 표면에 금박, 수 등을 더하여 장식성을 추구하였으며, 색채는 더욱 다채롭고 원색적으로 바뀌었다.<sup>11)</sup> 86 아시안 게임과 88서울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전통 한복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었고,<sup>12)</sup> 한복의 색상도 여전히 원색적이기는 하지만 70년대보다는 차분하고, 다양해졌다.

1990년대에는 천연염색 관련 방송들이 제작되어<sup>13)</sup> 전통 색상에 대한 관심을 높였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천연 염색가들의 전시회 및 공개강좌와 관련 서적들의 출판을 통해 천연염색의 실용화<sup>14)</sup>가 모색되

어 관련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영향으로 고급한복의 경우 천연염색에서 얻어지는 저채도의 자연스러운 색감을 살리는 색상이 주조를 이루고 색상이름도 천연염료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대체로 어둡고 진한 색채가 많은 편이었으며, 천연염색 또한 파스텔 톤에 의한 차분한 분위기의 배색이 많았다.<sup>15)</sup> 이 시기에는 전통으로의 회귀로 인해 치마, 저고리를 동색(同色)으로 하기 보다는 이색(異色)으로 배색을 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특히 한복의 색상에도 유행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90년대말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한복에는 진한 감색과 홍색의 대비 등 강한 원색대비가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2000년대 초기의 한복의 색상은 전체적으로 너무 무겁거나 또는 화려하지 않게 자연스러우면서도 은은한 색상들로 파스텔계열의 차분한 중간톤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색상은 감, 쪽, 양파 등의 천연재료를 물들여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색상이 여전히 강세를 띠었으며 우리 고유의 색감과 취향이 반영되었다.<sup>16)</sup> 하지만 일부에서는 금박 장식과 빨강 노랑 등의 화려한 원색과 전통에서 벗어난 다양한 배색을 시도하기도 하였다.<sup>17)</sup> 이러한 한복배색은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받아 경기침체의 시기에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가라앉은 느낌의 한복 배색이 많고 경기회복시에는 명도와 채도가 높은 화사한 한복배색이 많아진다고도 볼 수 있다.<sup>18)</sup>

### Ⅲ. 연구 방법

1999년과 2001년, 2003년에 전국 5개 도시(서울, 대전, 광주, 부산, 제주)에서 봄(4-5월), 여름(7-8월), 가을(9-10월), 겨울(11-12월)의 각 계절마다 두 주말에 걸쳐 한 장소에서 2-3시간씩 한복 입은 여성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사진 촬영하였다. 관찰 장소는 각 도시마다 전통문화 거리, 결혼식장, 결혼식앨범을 위한 야외촬영장소로 대상으로 정하고 사전조사를 통하여 선정하였다. 결혼식장은 최고급, 고급, 일반 수준으로 나누어 각 수준별 1곳 씩 모두 세 곳에서 촬영하였고, 서울은 일반예식장을 강남과 강북으로 나

누어 모두 네 곳의 예식장에서 촬영하였다. 수집한 사진들 가운데 정면으로 전신이 나타나는 사진만을 선택하여 1999년은 376장, 2001년은 418장, 2003년은 823장 총 1617장을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여성 한복을 구성하는 두가지 기본 아이템인 저고리와 치마의 배색관계를 조사하였다. 즉, 어떤 색 저고리에 어떤 색 치마를 착용하였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먼저 치마저고리의 배색관계를 전체적으로 살펴 저고리와 치마를 같은 색으로 입는 동색 배색과 다른 색으로 입는 이색 배색의 2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예비조사 결과 사진으로는 치마와 저고리의 정확한 톤을 식별하기 어려워 톤에 의한 분류는 배제하고 색상과 명도만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색상과 명도분류를 위한 기준으로는 먼셀표색계를 사용하였다. 색상분류는 기본색 10가지 색상(R, YR, Y, GY, G, BG, B, PB, P, RP)를 기본으로 삼아 동색배색은 흰색(W)을 더하여 11개로 나누고, 이색배색은 흰색(W), 회색(GR), 갈색(BR)를 더하여 13개로 나누었다. 4인 연구자가 전원 동의하는 방식으로 각 색상과 명도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분류하고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동색 배색의 경우는 각 색상별 명도단계를 고(H), 중(M), 저(L)로 나누어 먼셀표색계의 명도스케일에 기준하여 자료들을 분류하였다. 색상명은 한국산업규격(KS A 0011)에서 제시한 유채색과 무채색 명을 기준으로 삼았다.<sup>19)</sup>

### Ⅳ. 결과 및 논의

한복의 배색을 치마, 저고리 같은 색으로 착용하는 동색배색과 다른 색으로 입는 이색배색 유형으로 나누어 각 년도의 배색 유형의 분포와 각 배색유형의 색상별 출현빈도와 백분율을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였다.

#### 1. 배색유형의 분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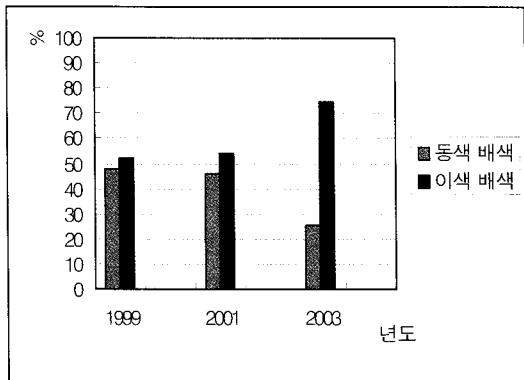
동색배색과 이색배색의 분포를 년도별로 비교하면 <표 1>, <그림 1>과 같다. 먼저 1999년과 2001년, 2003년 모두 동색배색에 비해 이색배색이 더욱 많았고,

그 차이는 현재로 올수록 더욱 커졌다. 2003년에는 이 차이가 매우 커 동색배색에 비해 이색배색 유형이 거의 3배 정도 많았다. 김찬주외<sup>20)</sup>의 연구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오랫동안 한복의 기본배색은 저고리와 치마를 다른 색으로 입는 이색배색이므로 이색배색의 유형이 많아진다는 것은 곧 현대에서 한복을 착용할 때 전통적 배색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짐을 의미한다.

〈표 1〉 배색유형 비교

단위: 개(%)

배색유형	동색 배색	이색 배색
1999(N=376)	179(47.6)	197(52.4)
2001(N=418)	191(45.7)	227(54.3)
2003(N=823)	210(25.5)	613(74.5)



〈그림 1〉 년도별 동색배색과 이색배색의 분포 비교

## 2. 동색 배색에서의 색상과 명도 변화

동색 배색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색상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년, 2001년, 2003년 공통적으로 빨강색(R)이었고, 자주색(RP)이 두번째로 많았다. 이 두가지 색상을 합한 백분율이 44.7%(1999년), 37.1%(2001년), 45.5%(2003년)를 차지하여 빨강과 분홍, 보라빛을 띤 빨강(연지) 등 붉은 계열 색상들을 여성들이 한복 색상으로 가장 선호한다는 것을 나타내었다(표 3 R-H, R-M, R-MH, RP-M). 그 다음으로는 청록(BG)과 파랑(B) 색상들이 많았는데

함하여 18.9%(1999년), 19.4%(2001년), 19.8%(2003년) 등 동일하게 20% 내외를 보였다(표 3 BG-M, B-H). 이처럼 붉은색과 푸른 색 계열이 한복 색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한복의 착용상황이 주로 결혼식이고, 신랑어머니는 푸른 색을, 그리고 신부어머니는 분홍색을 입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 초록과 연두의 빈도도 비교적 낮은 편이고 가장 적은 빈도를 보인 색상은 남보라(PB)였다.

고름의 색채는 저고리, 치마 색상에 관계없이 자주색 고름이 가장 일반적인 경향이고(표 3 YR-H, B-MH), 자주고름의 변형으로 청록(표 3 GY-H)이나 남색(표 3 RP-MH), 그리고 때로 보색의 색상(표 3 R-M)이나 치마와 같은 색상(표 3 R-H, R-MH)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동색배색에서는 고름과 같은 색상으로 옷깃에도 장식하였고, 이색배색과는 달리 소매 끝에 장식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명도사용에서는 년도에 관계없이 밝고 환한 느낌을 주는 고명도가 가장 많아 41.4%(1999년), 43.0%(2001년), 45.1%(2003년)의 분포를 보였다. 중간 밝기의 중명도도 비교적 많이 사용되었으나 1999년(37.1%)에 비해 2001년(22.0%)과 2003년(29.3%)에는 비중이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동색배색의 또 다른 유형으로 치마와 저고리의 색상은 동일하고 명도를 달리하여 입는 사례들도 다수 포함되었다. 즉 중명도와 고명도를 함께 입거나 고명도와 저명도를 함께 입어 명암의 대조효과를 준 배색사례들이 1999년(17.4%)에 비해 2001년(34.7%)과 2003년(25.6%)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중명도가 감소한 대신 두 가지 다른 명도를 함께 입는 사례들이 늘어난 것은 동일색 배색이 주는 단조로움을 탈기 위해 명도의 차이를 둠으로서 시각적 변화를 주려하였음을 의미하며 이는 한복 배색에 있어 비교적 새로운 경향이다. 한편 저명도의 비중은 모든 년도에서 4.0%-0.0%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명도의 관점에서 볼 때 여성 한복에서는 치마와 저고리 한 벌을 같은 색으로 입을 때에는 밝은 색들을 선호하고 어두운 색은 선호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색상과 명도를 함께 고려하면 빨강의 고명도 즉 얼은 분홍색의 출현빈도가 가장 높아 백분율이

〈표 2〉 동색배색에 나타난 각 색상과 명도 한복들의 사례

	B(파랑)	PB(남색)	P(보라)	RP(자주)	W(백)	계
저명도	0.0(0.0)<0.6>	0.0(0.0)<0.6>	0.6(0.0)<1.0>	3.4(0.0)<0.3>		4.0(0.0)<2.5>
중명도	0.6(1.6)<1.3>	0.6(0.0)<1.0>	3.4(1.6)<1.9>	7.3(8.9)<3.9>		37.1(22.0)<29.3>
고명도	1.7(2.6)<4.2>	1.7(0.0)<0.0>	0.6(1.6)<1.3>	2.2(4.2)<4.5>	6.1(8.4)<10.0>	41.4(43.0)<45.1>
저-중명도	0.6(3.1)<0.3>			0.0(0.5)<0.0>		0.6(5.1)<0.9>
중-고명도	0.0(1.0)<1.9>	0.0(0.5)<0.6>	0.0(4.7)<1.0>	1.7(2.1)<3.5>		12.8(22.3)<16.6>
고-저명도	0.6(2.1)<1.0>	0.6(0.0)<0.0>	1.1(0.0)<2.6>	0.6(2.6)<0.6>	0.0(0.5)<0.0>	4.0(7.3)<8.1>
계	3.4(10.5)<9.4>	2.8(0.5)<2.3>	6.1(7.8)<7.7>	15.1(18.3)<12.9>	6.1(8.9)<10.0>	100(100)<100>
	R(빨강)	YR(주황)	Y(노랑)	GY(연두)	G(초록)	BG(청록)
저명도						
중명도	7.8(5.8)<11.6>	2.8(0.5)<1.3>	3.4(2.6)<1.9>	3.4(2.6)<1.9>	2.8(0.5)<0.6>	7.8(0.5)<5.2>
고명도	15.6(11.0)<13.5>	2.8(6.3)<0.6>	1.7(2.6)<4.2>	3.9(1.6)<2.6>	1.7(1.0)<3.2>	3.4(3.7)<1.0>
저-중명도	0.0(0.5)<0.0>				0.0(0.5)<0.0>	0.0(0.5)<0.6>
중-고명도	6.1(1.6)<7.4>	0.6(7.3)<0.3>	1.1(0.5)<0.0>	1.1(1.0)<0.0>	0.0(1.0)<0.0>	2.2(2.6)<1.9>
고-저명도		0.0(0.5)<0.0>		0.0(0.0)<0.3>		1.1(1.6)<0.6>
계	29.6(18.8)<32.6>	6.1(14.7)<2.3>	6.1(5.8)<6.1>	5.6(2.6)<3.5>	4.5(3.1)<3.9>	14.5(8.9)<9.4>

※ 가로는 저고리, 세로는 치마를 표시. ( )안은 2001년 백분율, < >안은 2003년 백분율 임.

〈표 3〉 동색배색에서의 배색유형

				
R-H, 2001	R-M, 1999	R-ML, 2003	YR-H, 2003	GY-H, 2001
				
BG-M, 2001	B-MH, 2003	P-H, 1999	R-M, 1999	W, 2003

15.6%(1999년), 11.09%(2001년), 13.5%(2003년)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중명도의 빨강 즉 분홍색도 비교적

높은 백분율을 보여 조사한 모든 년도에서 분홍색은 한복의 색상으로 중년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색상

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젊은 여성들은 치마저고리 모두 분홍색을 입는 예는 없고, 선명한 빨강색을 입는 예는 소수이긴 하나 찾아 볼 수 있었다. 색상과 명도의 가능한 조합이 66개인 것을 고려할 때 하나의 색상과 명도조합이 이처럼 높은 것은 한복색상과 명도조합의 선호도가 편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년도에 따른 색상 변화를 보면 노랑, 초록, 보라색상은 3개 년도에서 차이가 거의 없고, 그 외의 색상은 년도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였다. 1999년에 비해 2001년과 2003년 연속적으로 출현빈도가 감소한 색상은 청록이었고, 빈도가 연속적으로 증가한 색상은 파랑과 흰색이었다. 한 편 주황은 다른 색상에 비해 년도별 차이가 가장 두드러져 1999년(6.1%)에 비해 2001년(14.7%)에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2003년(2.3%)에는 다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처럼 동색배색에서 한복 색상의 변화는 년도별로 공통된 경향과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함께 존재하였다. 이것은 분홍색, 푸른색처럼 년도에 관계없이 한복색상으로 늘 사용되는 색상과 주황, 청록과 같이 년도에 따라 유행하는 색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이색 배색에서의 색상 변화

이색배색에서 저고리와 치마의 각 색상별 분포를 백분율로 정리한 것이 <표 4>이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색배색에서도 조사한 모든 년도에서 치마, 저고리

각각 특정 색상의 출현빈도가 다른 색상들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다. 먼저 치마와 저고리를 분리해서 보면 저고리에서는 흰색(W)과 파랑색(B)의 착용빈도가 높았다. 특히 흰색저고리는 가장 많이 착용하여 1999년(31.0%)에 비해 2001년(34.4%)과 2003년(39.6%)에는 연이어 증가하였으며, 반면 파랑색은 1999년(22.3%)에 비해 2001년(21.1%)과 2003년(9.9%)으로 점점 수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두 가지 색상이 전체 색상분포의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빨강과 초록, 자주, 노랑의 순서를 보였고, 주황, 연두, 청록들은 빈도가 비교적 낮았다.

치마로는 3개년 모두 빨강색이 가장 많았고, 1999년(25.3%)에 비해 2001년(46.3%)에는 큰 폭으로 증

가하다가 2003년(31.2%)에 다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빈도가 높은 색상은 파랑색이었는데 년도에 따라 빈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23.8%, 20.3%, 21.8%). 이 두가지 색상을 합하면 50%내외를 차지해 빨강과 파랑이 치마의 색상으로 가장 이용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색상외에도 자주와 백색은 치마에서 비교적 많이 보였으나 저고리에서와 같이 주황, 연두, 노랑 색상들의 착용빈도는 낮은 편이었다. 치마와 저고리 모두 회색과 갈색, 보라와 남보라색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저고리와 치마 색상의 조합을 보면 모든 년도에서 흰색 저고리와 파랑색 치마의 배색이 가장 착용빈도가 높았고(13.7%, 13.7%, 12.4%), 이어 흰색 저고리와 빨강색 치마의 착용율도 매우 높았다(4.6%, 13.7%, 11.6%). 그리고 파랑색 저고리에 빨강색 치마 배색(9.1%, 9.3%, 11.1%)과 파랑색 저고리와 흰색 치마(9.6%, 9.3%, 6.2%), 빨강색 저고리와 파랑색 치마(6.6%, 3.5%, 6.5%)의 순서를 보였고, 빨강색의 대안색으로 자주색(RP)과 보라색(P)이 치마에 사용되는 사례와 파랑색의 대안색으로 초록(G)과 청록(BG)이 사용되는 사례가 조금씩 늘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흰색, 파랑색, 빨강색의 3가지 색상의 조화가 여성 한복에서 이색배색의 중심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5 W-B, W-R, B-R, B-W, R-B>).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들 3가지 색상들은 전통적인 한국의 색채정서의 기반이 되었던 오정색(五正色) 즉 청색, 백색, 적색, 흑색, 노랑색 5가지 색상으로 구성되는 오방색(五方色)에 속한다. 빨강은 남쪽의 색으로 작열하는 태양처럼 왕성한 생명력을, 푸른색은 동쪽의 색으로 부활·탄생을 의미한다고 보아 예전부터 민간에서 경사용 의복의 색상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sup>21)</sup> 따라서 현대에 와서도 그러한 오방색에 근거한 색채정서가 여전히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초록색 저고리와 빨강색 치마 배색(8.1%, 10.6%, 2.9%)도 비교적 선호도가 높은 배색이었다(<표 5 G-R>). 특히 초록색 저고리와 빨강색 치마는 갓 결혼한 신부의 한복배색에 해당하며 결혼 이후 이러한 배색의 한복을 입고 친지의 결혼식 나들이에

〈표 4〉 년도별 이색배색에서의 저고리와 치마 색상과 명도의 백분율 비교

1999 (2001) <2003>  
단위: %

	R	YR	Y	GY	G	BG	B
R		0.5(0.0)<0.0>	0.5(4.0)<1.3>	1.0(2.6)<2.6>	8.1(10.6)<2.9>	0.5(0.0)<0.7>	9.1(9.3)<11.1>
YR	0.5(0.0)<0.3>		1.0(0.0)<0.3>	0.0(0.0)<0.5>			0.5(0.0)<0.2>
Y	1.0(1.8)<0.5>	0.0(0.0)<0.2>		0.0(0.4)<0.0>		1.0(0.0)<0.2>	1.5(0.9)<0.8>
GY	1.5(0.0)<0.2>		1.0(0.0)<0.0>		0.0(0.0)<0.2>	0.5(0.0)<0.0>	0.5(0.0)<0.0>
G	0.5(0.9)<0.5>	1.0(0.0)<0.2>	0.0(0.0)<3.6>	0.0(0.0)<0.3>			
BG	0.5(0.0)<0.7>	0.5(0.0)<0.0>	1.0(0.0)<0.2>	0.5(0.0)<0.3>	0.0(0.0)<0.3>		0.0(0.0)<0.2>
B	6.6(3.5)<6.5>	1.0(0.4)<0.2>	0.0(0.0)<1.0>	0.0(0.0)<0.8>	0.0(0.0)<0.2>	0.0(0.9)<0.0>	
PB	0.5(0.0)<0.2>	0.5(0.0)<0.0>	0.0(0.0)<0.3>				0.5(0.9)<0.0>
P	0.0(2.2)<1.1>	0.0(0.0)<0.3>	0.0(0.0)<0.2>	0.0(0.0)<0.2>		0.5(0.0)<0.0>	0.0(0.0)<0.5>
RP	1.5(0.4)<3.9>	0.5(0.0)<0.2>	1.5(0.4)<1.8>	0.0(0.4)<0.3>	0.5(0.0)<0.0>	1.0(0.0)<0.7>	0.5(0.9)<0.7>
W	0.5(2.2)<1.0>		0.0(0.4)<0.0>		0.0(0.0)<0.3>	0.5(0.0)<0.0>	9.6(9.3)<6.2>
GY	0.0(0.9)<0.2>		0.0(0.4)<0.0>	0.0(0.4)<0.0>			
BR	1.0(0.4)<0.2>				0.0(0.0)<0.2>		
계	14.2(12.3)<15.2>	4.0(0.4)<1.1>	5.0(5.3)<8.7>	1.5(4.0)<5.0>	8.6(10.6)<4.1>	4.0(0.9)<1.6>	22.3(21.1)<19.9>
	PB	P	RP	W	G	BR	계
R	0.0(5.7)<0.0>	0.0(0.0)<0.3>	1.0(0.4)<0.2>	4.6(13.7)<11.6>	0.0(0.0)<0.5>		25.3(46.3)<31.2>
YR		0.0(0.0)<0.2>	0.5(0.0)<0.2>	0.5(0.0)<1.0>			3.0(0.0)<2.7>
Y		0.0(0.0)<0.3>	0.0(0.0)<0.8>	0.0(0.4)<0.5>			3.5(3.5)<3.3>
GY			1.0(0.0)<0.0>	1.0(0.0)<0.5>			5.5(0.0)<0.9>
G			0.5(0.0)<0.5>	1.5(0.4)<2.1>			3.5(1.3)<7.4>
BG				4.6(0.0)<3.3>			7.1(0.0)<5.0>
B		0.0(0.0)<0.2>	2.5(1.8)<0.5>	13.7(13.7)<12.4>			23.8(20.3)<21.8>
PB			1.0(0.0)<0.2>	0.5(0.4)<0.0>			3.0(1.3)<0.7>
P			1.0(0.0)<0.7>	1.5(2.6)<3.4>			3.0(4.8)<6.4>
RP		0.5(0.0)<0.0>		2.0(0.4)<4.1>			8.0(2.5)<11.7>
W	0.5(0.0)<0.0>	0.0(0.4)<0.2>	0.0(1.3)<0.5>			0.0(0.9)<0.0>	11.1(14.5)<8.2>
GY			0.0(0.4)<0.2>	0.0(0.9)<0.2>			0.0(3.0)<0.6>
BR				1.0(1.8)<0.5>	0.0(0.0)<0.2>		2.0(2.2)<1.1>
계	0.5(5.7)<0.0>	0.5(0.4)<1.2>	7.6(4.0)<3.8>	31.0(34.4)<39.6>	0.0(0.0)<0.7>	0.0(0.9)<0.0>	100(100)<100>

\* 가로는 저고리, 세로는 치마를 표시. ( )안은 2001년 백분율, < >안은 2003년 백분율 임.

착용한 젊은 여성들도 상당수 있었다. 초록색 저고리와 빨강색 치마가 2003년에 현저히 줄어든 이유는 결혼식 전 한복을 입고 고궁에서 야외촬영을 하는 모습들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실제 이러한 배색을 착용하는 사례가 줄어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고름의 색상으로는 동색배색과 같이 자주색 고름 <표 5 W-B, Y-R>이 가장 일반적이고 자주색의 변형으로 남색 <표 5 W-R>이 이용되었다. 이와 함께 치마와 같은 색상을 이용하기도 하고 <표 5 W-P, R-W>, 치마저고리가 빨강과 파랑의 배색일 때는 흰

색으로 고름을 하여 산뜻한 색채대비를 이루도록 한 점도 주목된다 <표 5 R-B, B-R>. 고름에 사용된 색채는 깃에, 또는 깃과 소매 끝에 함께 사용되어 전체적으로 포인트를 주는 역할을 하였다.

년도별 색상변화를 보면 저고리에서는 주황(YR), 청록(BG), 자주(RP) 색상들이 1999년에 비해 2001년과 2003년에 빈도가 감소하고, 흰색은 물론 노랑색과 연두색은 높아져 해가 갈수록 어두운 색채보다는 밝고 환한 색채의 저고리가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3년에는 저고리에 더구나 저고리의 몸판에 다른 색상을 사용한 경우 소매 끝에 흰색으로 넓



<표 5> 이색배색에서의 배색유형

				
W-B, 1999	W-R, 2001	B-R, 2001	G-R, 1999	W-P, 2003
				
B-W, 2001	R-W, 2003	R-B, 2003	Y-R, 2003	B-P, 2003

게 장식하여(표 5 R-B) 산뜻한 느낌을 강조한 디자인들이 다수 보였다. 치마에서는 연두, 청록이 감소한 대신 초록과 보라가 증가하여 해가 갈수록 중간색상들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산뜻한 색상이 선호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공통적으로 회색과 갈색, 주황색은 저고리와 치마 모두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색 배색에서도 특정 배색은 년도별 차이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파랑색 저고리와 흰색 치마의 경우 1999년(9.6%)과 2001년(9.3%)에는 선호도가 높았으나 2003년(6.2%)에는 눈에 띄이게 줄어들었다. 대신 2001년에 이어 2003년에는 흰색저고리에 빨강색 치마 배색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특히 흰색저고리와 빨강치마 배색은 매우 화사한 이미지를 주는 배색으로 젊은 여성들이 주로 입었으며, 전통적으로 미혼여성들이 주로 입던 노랑저고리와 빨강치마를 대신하여 근래 애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년도에 따라 특정 배색들이 강하게 부각되는 현상도 있

었다. 즉 1999에는 빨강색 저고리와 파랑색 치마 배색이, 2001년에는 노랑저고리와 빨강치마, 남색저고리와 빨강치마, 2003년에는 빨강저고리와 자주치마, 노랑저고리와 초록치마와 같이 특정 배색이 시기별로 유행하는 현상들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동색배색에서와 같이 이색배색에서도 여성 한복에서는 년도에 관계없이 흰색 저고리, 파랑색 치마와 같이 일정하게 선호도가 높은 배색도 존재하지만 파랑색 저고리, 흰색 치마와 같이 년도에 따라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배색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 V. 결론

한복의 색채변화에 관심을 갖고 1999, 2001, 2003년 3개년도 전국 5대 도시 결혼식장을 중심으로 총 1729매의 한복착용 사례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여성 한복의 배색은 저고리와 치마를 같은 색상으로 조화시켜 입는 동색배색과 다른 색상으로 조화시켜 입는 이색배색의 2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었으며 3개년도 모두 이색배색이 동색배색에 비해 많았고, 그 차이는 현재로 올수록 더욱 커져 저고리와 치마를 다른 색으로 조화시켜 입는 전통적 배색감각이 더욱 우세해지는 것을 보여주었다.

동색배색의 경우는 모든 년도에서 빨강(R)과 자주색상(RP)으로 대표되는 붉은색 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청록(BG), 파랑(B)으로 대표되는 푸른색 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이 두가지 계열색이 3개년도 공통적으로 약 60-70%를 차지하여 한복의 배색이 특정 색채에 편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명도에 있어서는 고명도가 가장 많고, 증명도는 중간, 저명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 한복의 저고리와 치마를 같은 색으로 입을 때는 밝고 부드러운 느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저고리는 고명도, 치마는 증명도 같이 색상은 같으나 명도의 차이를 두는 사례가 2001년과 2003년에 현저하게 증가하여 한복에서 동색배색이 주는 단조로움을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주려는 시도가 엿보였다.

이색 배색에서는 모든 년도에서 하양색 저고리와 파랑색 치마, 하양색 저고리와 빨강색 치마 배색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빨강색 저고리와 파랑색 치마, 파랑색 저고리와 빨강색 치마 등 흰색, 빨강색, 파랑색을 이용하여 저고리, 치마의 조합을 만든 배색유형들이 전체적으로 빈도가 높아 이들 3가지 색채가 여성 한복의 이색배색에서 가장 선호되는 색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주와 보라, 청록색 상들의 빈도도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이 색상들은 그 자체로서 선호되었다기보다는 빨강색과 파랑색에서 변화를 주기 위한 대안적 색채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어 개인적 기호와 년도에 따라 조금씩 색상의牛羊스를 달리하였다고 생각한다. 전통적으로 중년과 노년여성들은 남색이나 자주색 치마에 옥색저고리, 또는 연분홍저고리, 미색저고리를 입었다는 기록과 비교해볼 때 현대에 와서 남색과 자주색 치마

는 파랑과 빨강으로, 옥색, 연분홍, 미색저고리는 흰색 저고리로 대신하여 색채대비가 좀더 강렬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복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색상들은 동색배색과 이색배색 모두 희색, 갈색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고, 주황색, 보라색, 연두색의 빈도도 낮은 편에 속해 대체적으로 중간색의 사용빈도가 낮았다. 전통한복에서 일상복은 백색과 담색위주의 중간색이, 그리고 예복에서는 원색이 더 많이 사용되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들과 비교해볼 때 현대 한복에서는 중간색보다 채도가 높은 원색의 사용이 현저히 많은 현상을 보였다. 이는 현대에 와서 한복의 색채정서가 크게 변화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착용사례가 일상복에서 결혼식, 회갑연 등 경사스러운 날에 입는 예복의 성격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배색에 있어 년도별 차이를 보면 흰색, 빨강, 파랑색의 배색처럼 시기의 변화에 따라 그다지 영향받지 않는 기본적인 배색 유형들이 존재하지만 이와 함께 년도에 따라 노랑-빨강 등 특정 배색유형들이 강하게 부각되는 사례들도 발견된다. 특히 깃과 소매끝, 고름에 개인적 기호를 반영하여 자주색, 흰색, 남색 등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여 산뜻한 색채대비 효과를 주려는 시도들이 다수 보였다. 이처럼 양복과 같이 한복에서도 시대의 색채감각과 개인적 취향이 함께 작용하여 시기별로 특정 배색의 유행을 형성하고 소비를 주도한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한복에서도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배색경향이 있어, 젊은 여성들은 노랑저고리나 흰저고리에 빨강치마, 신부는 초록저고리와 빨강치마가 특징적인 배색이었다. 동색 배색은 주로 40대 이후의 중년여성들이 입었고, 30대도 있었으나 주로 빨강색 한복을 입었으며, 20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즉 한복에서 같은 색상으로 배색해서 입는 경우는 중년여성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복을 입는 상황이 주로 결혼식이나 축하연등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많다보니 계절에 따른 색상의 차이도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1999년에는 하절기에 거리에 서 노년여성들이 흰색이나 옥색의 모시 한복을 입은

모습을 더러 볼 수 있었으나 2001년과 2003년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현대 한복에서는 시기가 변하여도 주로 입는 색상이 거의 비슷하고, 자주 사용되는 배색도 비교적 제한되어 있으며, 배색에 있어 중간색보다는 색상이 선명한 원색의 조화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여성 한복에서는 붉은색과 푸른색, 흰색의 3가지 색채 유형을 기본 색채로 하여 매년 명도에 변화를 주거나 저고리, 치마의 색채조합을 달리하면서 여러 가지 배색 유형을 이루어왔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흰색, 붉은색과 푸른색 계열이 한복 색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현대 한복의 색채는 한국의 전통적 색채정서인 오방색에 기본 개념을 두고 전통이 자연스럽게 계승되고 있으나 한편으로 개인의 취향과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새로운 감각이 어우러지는 색채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전통적으로 신부와 미혼여성을 위한 한복에만 존재하던 초록색 저고리와 빨강색 치마, 노랑색 저고리와 빨강치마 배색은 여전히 신부나 젊은 여성들 사이에 착용율이 높고, 고름과 옷깃을 저고리—치마의 색상과 다른 제3의 색(주로 자주)으로 장식하는 것도 현대에서 그대로 행하여지고 있어, 시기가 변하여도 한복에서는 우리 고유의 색감과 미적 취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자료수집이 주로 결혼식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더우기 여성들의 한복에 국한하였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한복착용 상황을 확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남성들의 한복착용 경향도 조사하여 비교한다면 시기의 변화에 따라 한복의 색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해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 참고문헌

- 1) 이주현, 김찬주, 유혜경, 홍나영. (2001). 현대 한국인의 한복 착용: 아시아 전통 문화 양식의 전개과정에 관한 비교문화 연구(제 3보). *한국의류학회지*, 25(1), p. 45.
- 2) 앞의 글, p. 46.
- 3) Hurvich, L. M. (1981). *Color Vision*, Massachusetts: Sinauer Associates Inc., p. 10.
- 4) 앞의 글, p. 12.
- 5) Kobayashi, S. (1987). *A Book of Colors*. Tokyo: Kodansha International, pp. 80-85.
- 6) 이영혜, 강순제 (2007). 2000년대 한복에 나타난 배색 경향에 관한 연구. *복식*, 57(4), p. 47.
- 7) 유희경 외 (1999). *한국 전통복식에 관한 소재 연구*. 한국과학재단, p. 4.
- 8) 섬유기술진흥원 편 (1990). *대구 섬유 산업사*. 섬유기술진흥원.
- 9) 조미숙 (2003). *천연염색 연구동향 분석*.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
- 10) 이은진 (1999). *해방 이후의 한복용 소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
- 11) 이경자 (1985). *한국복식사론*, p. 343.
- 12) 이은진 (1999). *위의 글*, p. 17.
- 13) 조미숙 (2003). *위의 글*, p. 38.
- 14) 앞의 글, p. 30.
- 15) 이영혜, 강순제 (2007). *위의 글*, p. 48.
- 16) 강경남 (2004). *전통여자한복 구성요소 배색에 관한 색채도구 개발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3.
- 17) 한국경제 (2001.1.18). 은은한 색상, 소박한 모양새. *맵시 있게 한복 입는 법*.
- 18) 이영혜, 강순제 (2007). *위의 글*, p. 59.
- 19) 한국색채연구소 편 (2006). *색채 I*. 서울:(재) 한국색채연구소, p. 20.
- 20) 김찬주, 유혜경, 이주현, 홍나영 (2001). 20세기 초와 20세기 말의 전통한복 착용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9(4), p. 7.
- 21) 한국색채연구소 편 (2006). *Colorlist 기사/산업기사 핵심정리집*. 서울: 지구문화사, p. 107.